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35:1-6
2026 년 4 월 26 일 오전 11 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빛이었습니까? 기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한 순간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큰 기적, 놀라운 사건, 눈부신 체험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출 16:7).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출 16:15). "이것이 무엇이냐"는 히브리어로 '만 후'입니다. '만 후'에서 만나가 유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번쩍이는 빛이 아니라 배고픈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토대로 간단히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능력, 사랑이 삶의 자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허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출 24:17). 시내 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맹렬한 불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출 40:34).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대하 5:14). 성막에 충만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도 충만했는데, 그 때에도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짝이는 빛이나 빛을 내는 연기 같은 것으로 나타나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사 35:2). 2 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체는 사람이 아닌 그것들입니다. 바로 1 절에 나오는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1 절). 그것들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7 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됩니다. 메마른 땅은 변하여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35 장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 돌아올 때, 이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10 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격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사 40:5).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3).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9).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피부를 가진 나병환자의 피부가 깨끗해지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떠나간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아무 희망이 없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새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회복'과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보복과 갚아 주심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요 1:32-34). 그러나 옥에 갇힌 이후, 세례 요한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마 11:3). 세례 요한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오늘 본문 5-6 절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 11:4-5).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이 헬라어 성서인 칠십인역이라 오늘 본문과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6 절에 나오는 구절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사 35:5-6).

2. 변화와 회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다시 붙잡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세례 요한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든 걸까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웠던 세례 요한은 이사야 35 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5 절과 6 절이 성취되는 때인 '그 때'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4 절).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때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와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헌데 지금 눈 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려지며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때'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의심은 풀렸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평안히 순교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이 아니라 변화로 증명됩니다. 주장이 아니라 회복, 말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4 절이 모두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 주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때는 앞으로 완성될 종말적 하나님 나라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복수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35 장은 앞으로 완성될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42 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1 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 뿐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2 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5-6 절). 육체적 장애 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극복될 것입니다. 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8 절). 깨끗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우매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악한 짐승이 없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9 절).

3.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같이 이사야 35 장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넘어, 메시아 시대와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변화와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사막은 연못으로 변화하고 메마른 땅은 샘터로 변화합니다. 물이 없던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 솟아나고 물이 없던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메마른 채로 남아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을 연못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예수님께서 변화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면, 예수님의 신부이자 예수님의 몸 된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변화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벤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람을 통해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와 회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과 화해하는 삶, 절망 속에 빠졌지만 다시 희망을 갖는 삶,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헌신하는 삶. 이러한 변화와 회복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던 사람이 다시 웃게 되고,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며, '나는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헌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허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따라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그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행사 그리고 프로그램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원수였던 사람과 오늘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절망하던 사람이 다시 웃음을 찾을 때, 바로 그 변화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 또한 세상에 그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화가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광야를 꽃피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